

2020
Vol. 4
통권 제14호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 INSIGHT

세종인사이트



SEJONG RESEARCH INSTITUTE

2020
Vol. 4



CONTENTS

- 03 세종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방안 | 지 남 석 책임연구위원
- 08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지역학'을 정립하려면... | 이 재 민 연구위원
- 11 코로나19로 인한 세종시 택시운행변화 분석... | 안 용 준 연구위원



I. 배경과 진행사항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경쟁 심화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은 '도시경쟁력 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 세종시는 2018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5년 주기)을 받았으며, 2023년에 '재공인' 필요
- 세종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대비하여 추진가능한 안전사업을 검토하고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의 준비작업 필요



II. 국제 안전도시란?

- **개념**
 - “주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고와 손상, 폭력, 자살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도시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도시임을 의미
 - 1989년 최초 공인(스웨덴 린초핑) 이후, 2020년 6월 기준 세계 31개국 407여 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활동중 (국내 총 20개 자치단체)
- **기본원칙**
 - 안전도시의 3가지 기본원칙: 형평성, 지역사회의 참여, 국내 및 국제적 참여와 경험 공유

세종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방안

수행기관

- 2015년 3월 이후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SCCC)가 공인과정을 감독·주관
-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ASCSC)는 21개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는 6개 국가에서 해당 센터가 운영중(국내: 아주대학교병원 부설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수행)

공인기준 및 절차

- 공인기준

1.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상호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4. 활용 가능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5.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나타내 보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6.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 및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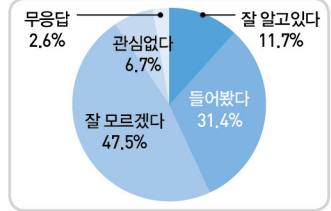


III. 세종시민의 안전의식 설문조사¹⁾

설문 1: 국제안전도시 인증 인지

- 세종 국제안전도시 인증 인지 여부: 긍정적 답변('잘 알고있다', '들어봤다') 43.1%, 부정적 답변('잘 모르겠다', '관심없다') 54.2%

구분	빈도(명)	비율(%)
잘 알고있다	71	11.7
들어봤다	191	31.4
잘 모르겠다	289	47.5
관심없다	41	6.7
무응답	16	2.6
합계	6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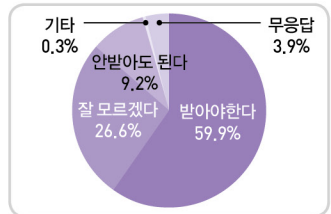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9 안전 및 손상감시 실태분석

설문 2: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필요성: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59.9%)', '안받아도 된다(9.2%)'

구분	빈도(명)	비율(%)
받아야한다	364	59.9
잘 모르겠다	162	26.6
안받아도 된다	56	9.2
기타	2	0.3
무응답	24	3.9
합계	608	100.0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9 안전 및 손상감시 실태분석

IV. 사업 검토 및 제안

공통원칙: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업선정 기준

- (공통1) 사업의 혜택을 시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사업
- (공통2) 세종시에서 아직 추진하지 않았으나, 시급성·필요성이 높은 사업
- (공통3) 세종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비용이 높지 않은 사업

세부원칙: 세종시 특성 반영 + 사업 효과 극대화 가능

- (세부1) 타 지자체에서 효과가 높은 사업
- (세부2) 세종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
- (세부3) 사회적 약자 또는 요보호계층을 위한 사업
- (세부4) 읍면지역의 환경 및 안전 개선사업
- (세부5) 시민참여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1) '세종특별자치시 2019 안전 및 손상감시 실태분석' 보고서 참조

세종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방안

사업 도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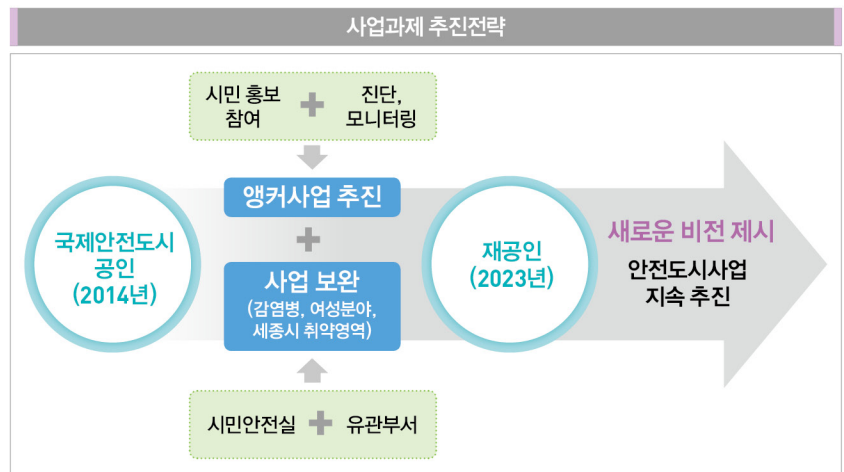
- 타 지자체의 국제안전도시 사업리스트를 검토하고, '세종시에서 도입가능한 사업'을 최종 도출함(총 20개 사업 제시)

세종시 국제안전도시 사업 제안	
분야	사업명
세부1: 타 지자체에서 효과가 높은 사업	
폭력범죄예방	(울산 남구) 학교폭력 예방·근절사업 리더십향상 프로그램 「성품」
폭력범죄예방	(제주도) 안심제주 앱 이용 스마트 안전망 구축
아동·청소년·노인	(공주시) 집배원을 활용한 위기가정 발굴(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아동·청소년·노인	(전주시) 동네와 주민중심 동네복지 추진
세부2: 세종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재난재해안전	(제주도) 생활주변 안전사고주의보 발령
폭력범죄예방	(평택시)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
재난재해안전	(울산 남구) 「산업안전 지식 공유장터」 행사
※여성친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범죄 예방 전담 팀 운영
세부3: 사회적 약자 또는 요보호계층을 위한 사업	
교통안전	(공주시) 아동용 투명 캐릭터우산 보급 및 쓰기운동 전개
아동·청소년·노인	(전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자살예방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폭력범죄예방	(울산 남구) 학교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세부4: 읍면지역의 환경 및 안전 개선사업	
아동·청소년·노인	(아산시) 우리마을 주치의제
자살예방	(울산 남구)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대(多)가(家)가다」
교통안전	(공주시) 간선도로 접속 농로 및 마을안길 가각부 정비
자살예방	(평택시) 농약판매 안전시스템 구축
세부5: 시민참여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재난재해안전	(제주도) 가족과 함께하는 119안전체험 릴레이
아동·청소년·노인	(울산 남구)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캠프」 운영
자살예방	(울산 남구) 생명사랑 서포터즈 사업
자살예방	(아산시)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키움 지역보호체계 구축〉



V. 정책 제언

- 국제안전도시 지속적 추진
 - 세종시의 안전 개선효과,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제안전도시 자격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앵커사업 추진
 -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상징적인 앵커사업(또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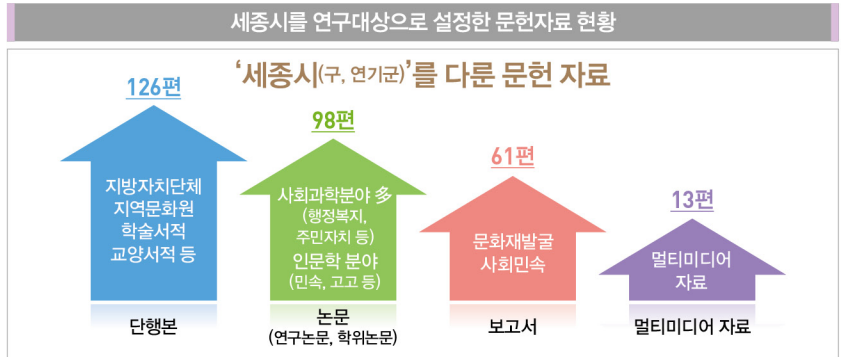
- 사업 다양화 + 모니터링 강화
 - 감염병 관련영역 보완: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사업 발굴
 - 여성 관련사업 보완: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점을 반영한 관련사업 보완
 - 취약영역 강화: 상대적으로 안전지수가 낮은 교통사고, 생활안전, 화재 등의 영역 보완
 - 진단 및 모니터링 강화: 내부적인 사업 검토와 진단·평가를 통한 지속적 보완
- 부서간 연계 협력 강화
 - 세종시 내부적으로 부서간 '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 유사사업, 활동과의 연계: 관련부서간 사업관리, 자료 공유 등 연계·협조 강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도모

- ## I. 왜 '지역학'인가?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초국가·초연결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 내 지역이 함의하는 문화적 특수성이 중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역쇠퇴가 현실이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정체성의 구현전략으로서 지역학의 실천이 주목받고 있음
 -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지역학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세종학 진흥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지역학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학을 실천하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됨

- ## II. 지역학 전개와 개념, 지역학 연구의 가치
- 지역학은 타국의 견문과 풍문을 기록한 여행기에서 유래하여, 19세기에는 강대국이 식민지 통치 효율성 제고와 문화적 지배를 완성하기 위한 민족학(民族學)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20세기에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학문으로 활용되었음
 - 지역학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국내 및 국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포괄적'으로 연구대상을 삼으며, '융합적 접근'을 통해 '총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임
 - 지금까지의 지역학은 지리학·인류학·사회학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사실 모든 학문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도 가능함
 - 지역학 연구의 가치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한 응용학적 해법 제시 및 소멸지역 기록화 작업의 이론적 기반 제공, 지역사의 기록과 편찬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 지역학자 양성에도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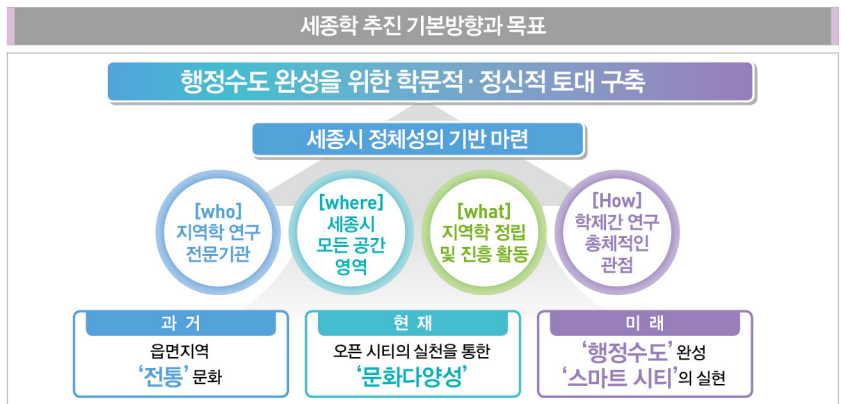
- ## III. '세종학' 추진 현황
- 과거 연기군을 포함하여 세종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문헌자료는 총 298편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단행본 126편, 논문 98편, 보고서 6편, 멀티미디어 자료 13편으로 나타남
 - 인문학 분야의 연구는 문화재 발굴 및 민속지 등으로 문화인류학 계통의 연구가 많음
 -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행정복합도시 및 주민자치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룸
 - 세종시 출범 이후 시 차원에서는 지역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세종학 진흥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포럼 및 대학과 연계 활동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1) 이재민(2020),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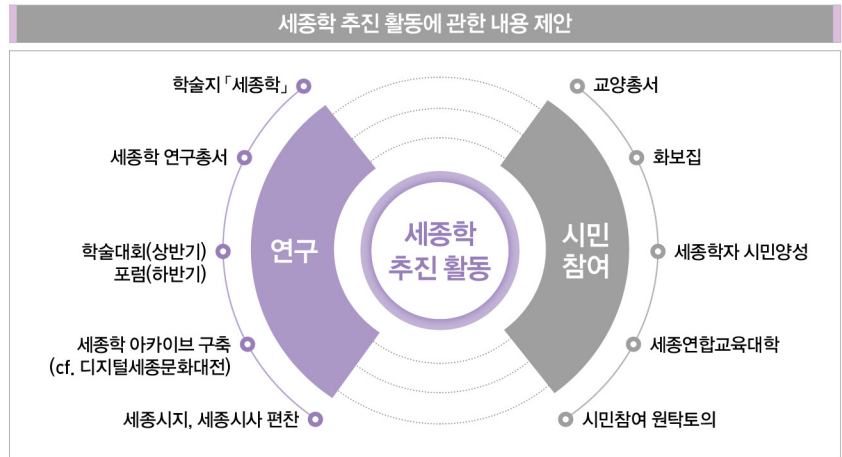
IV.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추진방안

- 세종시가 함의하는 과거(전통문화), 현재(다양성), 미래(행정수도,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학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일차적 목적은 ‘세종시 정체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학문적·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
 - 세종학의 실천 주체로는 세종학을 전담하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역 정책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을 1순위로 제안함
 - 지역의 모든 공간영역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세종시에서는 신도시와 더불어 읍면지역을 함께 포함하여야 함
 - 지역학 정립과 진흥을 위한 실천으로는 전문적인 연구 활동과 시민소통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종학 프로그램으로 세종학 총서·세종학 포럼·세종학 연합대학 등을 제안함
 -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융합적이며, 총체적인 이해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지역학’을 정립하려면...

- 세종학의 추진 내용은 크게 연구분야(학술활동, 총서발간)와 시민소통 분야로 구성할 수 있음
 - 학술활동 분야로는 ‘세종지역연구(가칭)논문집, ‘세종학’ 연구총서, 학술대회와 포럼 등 학술논의의 장, 세종학 아카이브, 세종시지 및 세종시사와 같은 관찬지 발간 등을 사례로 제안함
 - 시민소통 분야로는 기존 운영되는 세종연합 교육대학의 운영을 비롯하여, 교양총서 및 화보집 발간, 세종학자 시민양성 프로그램, 시민참여 원탁 토의 등의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안함



V. 효율적인 ‘세종학’ 정립을 위해

- 세종학의 실천을 통해 인근 대전시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세종학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세종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세종학 진흥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세종학 연구센터의 설립을 통해 세종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종대안을 연구하는 ‘세종학’과의 관계설정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I. 서론

-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함께 도시 기반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에 대비해서 관내 택시 수가 352대로 부족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국가 택시 총량지침제도의 산식으로는 택시 총량을 확대하기 곤란한 실정임
- 따라서 세종시 운행 택시들을 효율적으로 최적 운영 및 활용하기 위해 세종시 택시 운행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의 변화속에서 세종시 택시 운행태도 변화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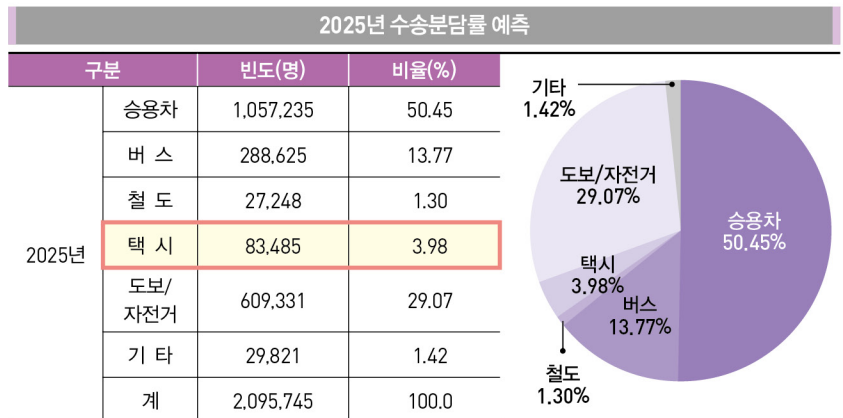
II. 세종시 택시 일반현황 및 수단분담률

● 세종시 택시 운행현황

- 세종시 택시 대수는 총 352대(2019년 11월 기준)로 일반택시 134대, 개인택시 218대로 구성되었으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세종시 천명당 택시 대수는 1.09대로 평균치 2.96대보다 많이 낮은 수준임

● 세종시 택시 장래 수단분담률

- 국가교통 DB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종시 택시 총 통행량은 48,984통행/일, 수송분담률 전체 2.88%로 도출됨
- 2025년 세종시 택시 통행량은 83,485통행/일, 수송분담률 3.98%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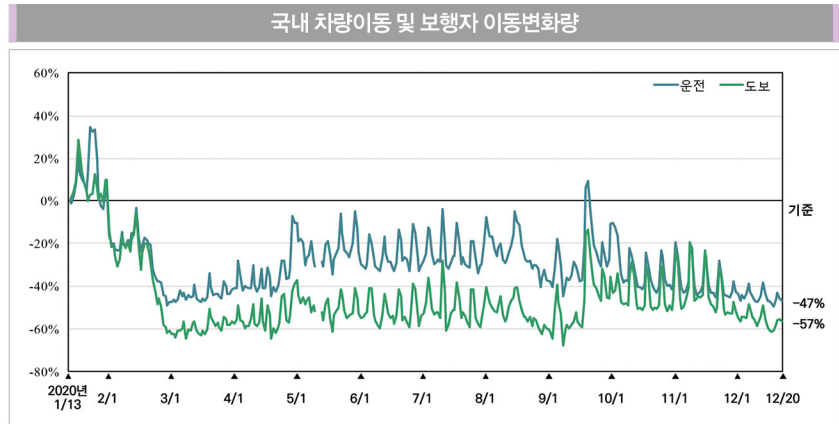
1) 안용준(2020), 세종시 택시운행태도변화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의 내용을 재정리함

자료 : 국가교통 DB자료기반 연구자 재작성

III. 코로나19로 인한 타 교통수단 이용량 변화

● 국내외 교통 이동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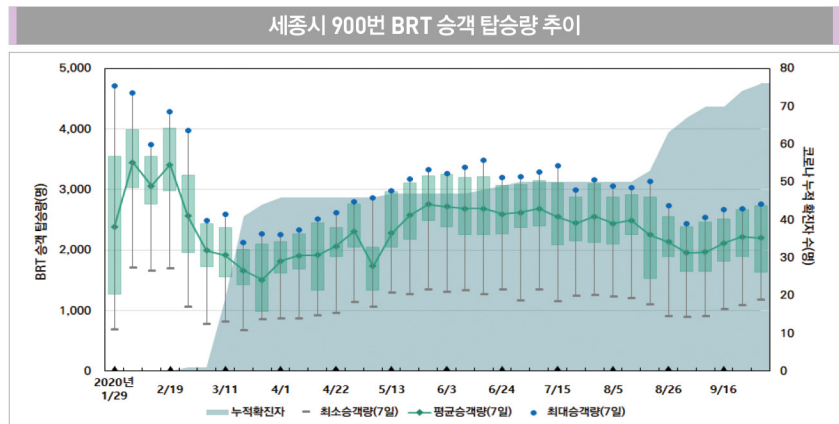
- 한국의 차량이동 및 보행자이동 변화량을 iOS기반의 AppleMaps이동성 트렌드 보고서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2020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20년 12월 20일은 차량이동 -47%, 도보이동 -57%로 교통량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 <https://www.apple.com/covid19/mobility/>

● 세종시 BRT 이용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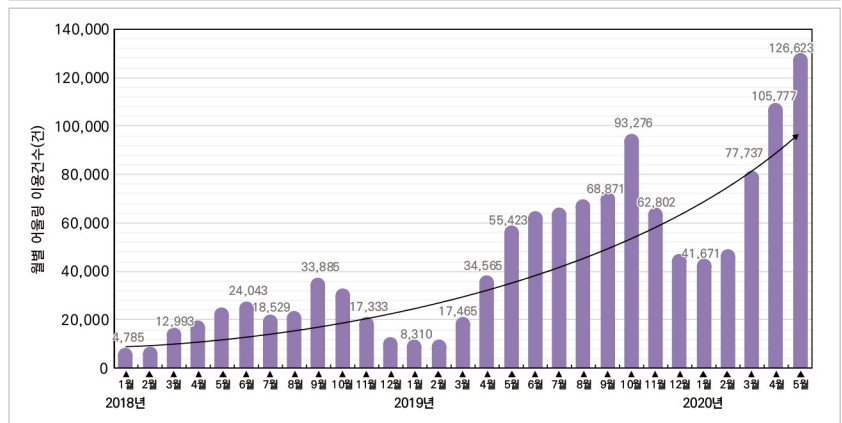
- 세종시 내부 대중교통이용량을 살펴보기 위해 내부순환노선인 BRT 900번 승객 탑승량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19 이전 평균 3천 명 초반대에서 코로나19 이후 2천 명대로 감소하였음



●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객 변화

- 대중교통수단 이용량의 감소와 달리,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객의 수는 코로나19 이후 더 상승한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남
- 세종시 뉴어울링으로의 전환정책을 감안할지라도, 이용객들이 대중교통보다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자수 추이



IV. 세종시 택시 — 운영행태변화 비교분석

● 평균 택시 이용객 수 및 택시 1대당 이용횟수

- 세종시 택시의 하루 이용객 수는 OD(Origin-Destination)수로 승객탑승횟수를 추정할 수 있는데 2019년에는 6,140쌍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은 OD 수 3,994쌍으로 승객 탑승 횟수가 2019년 대비 65% 수준으로 급감
- 2019년의 경우 운행 택시 1대당 평균 20.3명, 2020년의 경우 13.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2020년 모두 금요일에 이용자가 가장 많고 일요일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내서 요일별 특성은 비슷하였음

● 평균 운행거리 및 승객탑승시 1회당 운행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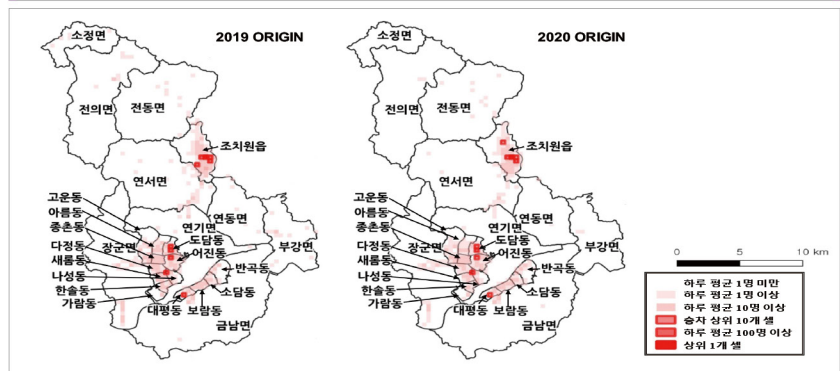
- 2019년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택시 1대당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221.21km, 2020년의 경우 142.18km로 분석되어서 평균 운행거리가 급감하였음
- 승객 탑승 시 1회 평균 운행거리는 2019년의 경우 5.44km, 2020년은 5.58km로 큰 차이는 없음

코로나19로 인한 세종시 택시운행변화 분석...

법정동별 주요 승하차지점

- 2019년 분석 기간 중 택시승객 승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조치원읍(39.48%)이고 다음으로 어진동(8.49%), 나성동(8.38%), 도담동(7.08%) 순으로 나타났고, 2020년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조치원읍(36.51%)이고, 다음으로 나성동(10.27%), 어진동(8.15%), 도담동(7.67%) 순으로 나타나서 나성동의 승차량이 많아졌음
- 2019년에 택시 승객 하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조치원읍(32.76%)이고, 차순으로 오송읍(충북) (6.46%), 어진동(6.32%), 나성동(4.84%) 순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가장 많은 지역은 동일하게 조치원읍(30.35%)이고, 차순으로 어진동(6.53%), 나성동(6.25%), 오송읍(충북) (5.93%) 순으로 나타남

세종시 읍면동별 주요 택시 승차지점(Cell based)



주요 OD(승하차) 구간 분석

- 택시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OD구간을 법정동별로 분석 시, 조치원읍 내부 통행이 28.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차순으로는 2019년에는 조치원읍-오송읍(2.61%), 조치원읍-연서면(2.59%), 어진동-오송읍(1.66%)순으로 나타남. 2020년에는 조치원읍-오송읍(2.70%, 2019년 대비 0.09% 증가) 조치원읍-연서면(2.05%, 2019년 대비 0.54% 감소), 어진동-오송읍(1.40%, 2019년 대비 0.26% 감소)순으로 나타남

V. 정책제언 ———

세종시 택시 공간적 재분포

- 2019년, 2020년 모두 조치원읍에서 승하차 횟수가 가장 많았고, 주요 운행구간은 조치원읍 내부통행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동지역의 상대적 택시부족현상을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됨



- 이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세종시는 2020년에 플랫폼 택시 도입을 통해 강제 배치형식 시도하였으나,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수요가 감소하였고 택시기사분들도 플랫폼 (마카롱) 앱의 활용도가 낮았음
 - 플랫폼 택시는 향후 택시 운행 방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범 도입 필요
- 택시 대기 장소, 승객수요정보 제공 등 택시기사분들에게 동지역으로의 택시 유인 정책 필요

● **준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 세종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 수요가 아닌 개인 승용차 수요를 택시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대중교통취약지역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
 - 세종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사업의 하나로 진행 예정인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심 지역 내 운행과 연계하여 세종시 택시운행시스템의 통합적 운영 관점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모빌리티 혁신기반지침 선도적 수행**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2020년 11월 3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 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권고안에는 플랫폼사업 제도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 제도 개선방안이 있음
 - 세종시에서 중앙정부의 상위지침에 부합하여 선도적으로 수행 시, 세종시 택시 운행 패턴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체감형 택시총량산정방식 개선, 플랫폼을 활용한 자발적 합승 허용, 차종 다양화 및 차고지 개선 등 반영 필요

<https://www.dsi.re.kr>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Tel. (042) 530-3500 Fax. (042) 530-3528

발행인. 정재근 편집인. 임성빈 등록일. 2017. 10. 30. 등록번호. 대전중, 바00008